



실적 시즌을 겨냥한 은행주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

은행 Weekly | 2026.9.21

Analyst 최정옥,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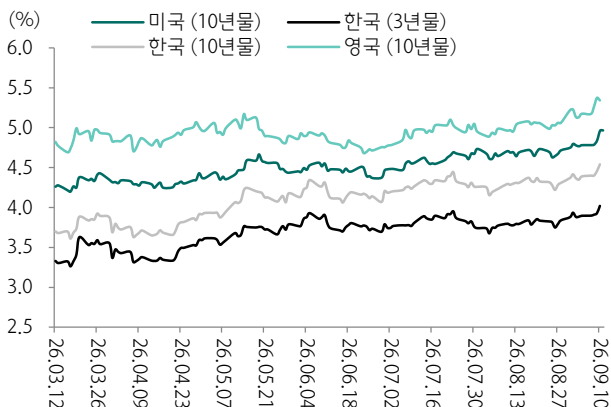
- 금융당국이 금융이력이 부족한 '싹파일러' 등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은행에 그간 부과했던 자본금·충당금 규제를 완화. 중소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운전자금을 보다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 위반 정도에 비해 폭탄급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을 금융당국이 개편 예정. 전체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50%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체계를 고쳐 행위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안 추진
- 금융당국이 대출액 4억원이 넘는 동시에 DSR 35%를 초과하는 주담대에 지금보다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신규 주담대 뿐만 아니라 이미 보유한 기존 주담대까지 포함하는 방안 검토. 신규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
- 시장금리 상승에 시중은행들이 앞다퉀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인터넷은행과 저축은행은 금리 경쟁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 이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 인뱅의 경우 5대 은행과의 예대금리차가 0.2%p 수준으로 줄어듦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9월 18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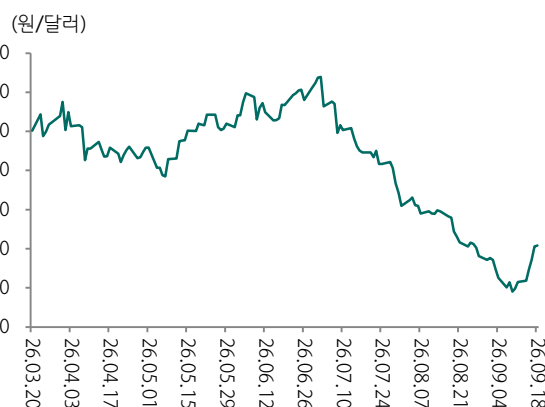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58	6.7	23.7		5,684,350.9	-0.2	0.4	-23.8	63.6	674.4	164.8	-8,736.8	-113.3
은행	0.72	8.2	9.1	0.65	220,313.7	-1.8	3.5	8.3	32.6	253.4	52.2	-242.7	-6.2
KB 금융	0.95	9.2	10.6	0.81	62,318.6	-1.2	4.3	11.0	40.9	113.1	17.1	-114.9	2.6
신한지주	0.84	9.8	9.7	0.69	52,155.9	-1.6	4.3	10.1	44.5	54.3	-9.3	-52.4	-1.6
우리금융	0.61	7.7	8.3	0.52	26,634.8	3.0	7.1	16.4	29.1	19.7	22.2	27.9	-46.3
하나금융	0.72	8.2	9.3	0.64	36,228.6	-3.0	2.3	8.3	42.1	22.3	-0.7	-28.2	6.5
기업은행	0.43	5.8	7.5	0.54	16,068.1	-3.4	-1.5	-6.1	-3.8	4.8	-0.8	-32.1	27.2
BNK 금융	0.43	6.0	7.4	0.50	4,832.7	-1.1	6.3	-11.2	-0.8	17.0	11.9	-25.3	8.3
이M 금융	0.43	5.9	7.5	0.47	2,880.6	-1.4	4.7	7.3	17.0	2.1	1.3	-1.8	-0.3
JB 금융	0.87	7.6	12.1	1.00	5,791.5	-2.2	11.3	19.0	21.1	20.1	10.5	-15.8	-2.5
카카오뱅크	1.38	17.0	8.3	0.73	9,804.8	-3.7	-6.4	-7.2	-4.9	0.5	0.3	-12.0	11.1
삼성카드	0.56	8.1	7.0	1.90	5,097.7	-3.3	-8.2	-11.2	-21.3	2.2	0.0	-7.1	4.8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1.8% 하락해 KOSPI 하락률 0.2% 대비 초과하락. 이는 1) 지난주 다시 반도체만 독주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비반도체 업종들의 주가가 대체로 부진했던데다 2) 은행주의 경우 미국 FOMC 회의와 일본 BOJ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이를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해 글로벌 금리 추가 상승이 제한되었고, 3)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전후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추정.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2년물은 상승 폭이 컸지만 10년물은 상승 폭이 제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임. 전주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4.76%로 한주간 13bp 상승한 반면, 10년물 국채금리는 5.00%로 한주간 3bp 상승에 그쳤음. 국내 국채금리도 단기물은 상승하고 장기물은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남. 국내 1년물과 3년물 국채금리는 3.67%와 4.04%로 한주동안 각각 11bp와 3bp 상승했지만 10년물은 4.47%로 한주간 7bp 하락. 한편 한때 1,330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던 원/달러 환율은 매파적 연준으로 상승 전환. 1,385.5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41.4원이나 급등했음.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KOSPI와 은행주를 각각 8.7조원과 2,430억원 순매도했는데 최근 KOSPI 매도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를 순매수하던 흐름이 다시 순매도로 돌변한 점이 특징적인 요인이었음. 한편 국내 기관은 KOSPI와 은행주를 각각 6,740억원과 2,530억원을 순매수. 다만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은 2,400억원이 국내 기관 순매수의 대부분을 차지해 실질 순매수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됨
- 전주에도 특징주는 우리금융. 한주간 주가가 3.0% 상승해 은행주 중 유일하게 상승했고, 업종 평균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강세를 계속 시현. 2주간 연속 초과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전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수세가 재유입되고 있기 때문. 특히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의 은행주 매도 강도 확대 속에서도 우리금융에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기록했음. 그 외 해당 종목이 KOSPI 중형주로 재분류되면서 9월 이후 연기금 수급 개선 효과를 누려 왔던 BNK금융과 JB금융에 지난주에도 연기금의 순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점도 수급상 특징적인 요인이었음
- 은행 과징금과 관련된 이벤트가 계속 이슈화. 금융사들이 신용정보법 위반 소지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재를 앞두고 있는데 위반 정도가 경미해도 매출액 3%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조단위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주초에 나오기도 했지만 16일 금융당국이 관련 TF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의 과징금 산정 체계 손질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짐. 부과기준을 세분화해 위반 정도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 한편 홍콩 ELS 과징금은 17일 안건 소위원회에서도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결론은 9월을 넘길 것으로 예상. 반면 공정위의 국고채 입찰 담합 과징금은 9월말경 재제 여부가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음. 매출액을 낙찰가로 보느냐 실제 영업수익으로 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 금융권은 실제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 주요 언론에 따르면 매출액을 낙찰가로 볼 경우 15개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예상 과징금은 수조원대이고, 매출액을 영업수익으로 볼 경우 총 과징금은 6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이익가시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현 환율은 6월말 대비 여전히 160원 가량 낮은 상황이지만 9월말까지의 환율 변화에 따라서 은행들의 외화환산익 발생 규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임. 외화환산익 발생은 기업은행>하나금융>우리금융 순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화환산익 발생 규모가 미미한 신한지주는 3분기 중 2,000억원을 상회하는 부동산 매각익 발생 전망. 은행 3분기 실적의 부정적 요인들로는 NIM 하락과 증권 브로커리지수수료 감소, 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관련익 축소 등인 반면 긍정적 요인들로는 예상을 상회하는 대출성장률과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화환산익, 증권 성과급 감소에 따른 판관비 감소 등임. 중소형은행들의 경우 최근 NPL커버리지비율이 100%를 하회하면서 커버리지비율 상향을 위한 보수적 충당금을 일부 추가 적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지난주부터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 중이고, KOSPI 내 반도체업종 독주 현상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수급상 우호적이었던 외국인 수급도 순매도로 돌변하면서 은행주에 뚜렷한 단기 모멘텀은 크지 않은 상황. 다만 우려와는 달리 3분기 은행 실적도 QoQ 추가 증익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실적 시즌을 겨냥한 은행주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KB금융(매수/TP 235,000원), 우리금융(매수/TP 43,000원)

- KB금융의 3분기 실적은 타행들과는 달리 부동산매각익과 외화환산익 등의 대규모 비경상 이익 발생 요인 없이도 양호할 것이라는 점에서 펀더멘털 측면의 강점 부각 예상. 금리 모멘텀 재발생시 업종내 리딩뱅크 프리미엄 강화 가능성 또한 높음
- 우리금융은 유진PE 블록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재유입되면서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 중. CET 1 비율 급등으로 향후 주주환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올해 추가상승률이 경쟁사들 대비 여전히 적어 상대적 valuation 매력도 높음

Global Peer Table

(2026년 9월 18일 종가 기준)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KOSPI	1.58	6.7	23.7		5,684,350.9	-0.2	0.4	-23.8	63.6
은행	0.72	8.2	9.1	0.65	220,313.7	-1.8	3.5	8.3	32.6
KB금융	0.95	9.2	10.6	0.81	63,099.0	-1.2	4.3	11.0	40.9
신한지주	0.84	9.8	9.7	0.69	53,000.9	-1.6	4.3	10.1	44.5
우리금융	0.61	7.7	8.3	0.52	25,861.2	3.0	7.1	16.4	29.1
하나금융	0.72	8.2	9.3	0.64	37,807.9	-3.0	2.3	8.3	42.1
기업은행	0.43	5.8	7.5	0.54	16,626.3	-3.4	-1.5	-6.1	-3.8
BNK금융	0.43	6.0	7.4	0.50	4,888.0	-1.1	6.3	-11.2	-0.8
IM금융	0.43	5.9	7.5	0.47	2,921.8	-1.4	4.7	7.3	17.0
JB금융	0.87	7.6	12.1	1.00	5,922.1	-2.2	11.3	19.0	21.1
카카오뱅크	1.38	17.0	8.3	0.73	10,186.5	-3.7	-6.4	-7.2	-4.9
삼성카드	0.56	8.1	7.0	1.90	5,271.6	-3.3	-8.2	-11.2	-21.3

미국

S&P 500	5.14	21.3	22.9	6.04	68,249.7	-0.1	-0.4	2.3	11.8
은행	1.68	12.7	13.3	1.15	2,248.2	-4.1	-5.4	3.7	5.9
Wells Fargo	1.53	11.8	13.3	1.03	260.4	-4.6	-1.5	5.4	-7.6
JPM	2.53	14.2	18.7	1.38	929.5	-1.8	-3.7	8.0	8.5
CITI	1.12	11.9	10.0	0.71	221.0	-5.1	-4.3	-7.4	12.9
BOA	1.43	12.4	12.2	0.99	403.7	-7.9	-9.7	3.3	5.0
US Bancorp	1.48	11.5	13.4	1.18	93.6	-4.4	-7.3	4.2	12.6
PNC	1.55	12.1	13.2	1.27	93.0	-4.5	-8.3	1.3	11.7
BB&T	0.99	10.5	9.6	1.05	59.3	-3.7	-7.4	1.5	-1.3

중국

상해A주지수	1.37	13.9	10.1	1.43	62,924.1	0.7	-1.8	-3.4	-1.4
은행	0.59	6.5	9.1	0.68	11,034.1	-1.6	4.5	9.8	-2.3
공상은행	0.70	7.8	9.0	0.68	2,731.4	-0.5	5.2	12.7	1.8
건설은행	0.75	8.2	9.6	0.73	2,197.1	-1.9	3.6	11.1	16.5
농업은행	0.81	8.2	9.9	0.62	2,339.4	-2.3	3.2	6.9	-11.3
중국은행	0.73	8.7	8.7	0.65	1,987.6	-0.5	8.5	15.4	14.1
교통은행	0.54	7.0	7.9	0.62	641.3	-0.3	6.4	14.5	2.9
초상은행	0.86	6.8	12.9	1.13	1,038.0	-1.8	6.0	11.9	-3.6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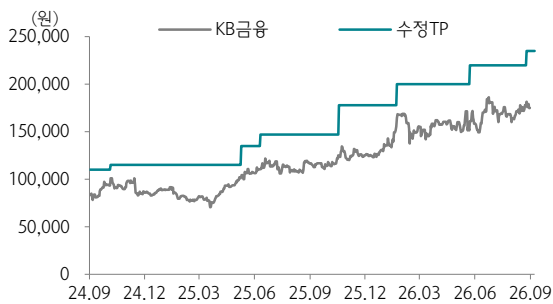
NIKKEI	2.77	21.1	12.7	4.59	1,047,317.7	1.6	-3.6	-8.4	29.2
은행	1.49	15.3	9.6	0.51	147,943.9	-0.7	-0.5	7.1	47.0
Mitsubishi UHF	1.92	18.3	10.8	0.61	42,961.1	-1.1	-2.6	7.3	45.2
Sumitomo Mitsui Financial	1.67	16.5	10.8	0.61	25,961.7	-1.2	-1.0	1.5	35.5
Mizuho	1.88	17.5	11.4	0.43	20,751.9	-1.8	-0.4	3.0	49.0
Sumitomo Mitsui Trust	1.48	16.4	9.3	0.37	4,943.4	0.1	2.0	14.5	48.1

유럽

MSCI Europe	2.39	15.7	14.6	1.77	15,180.9	-0.6	-2.6	0.0	7.5
은행	1.60	11.7	13.8	0.75	2,207.4	-2.3	-1.1	6.5	20.2
HSBC	1.87	12.0	15.4	0.86	259.4	-2.6	-0.1	5.4	28.9
Santander	1.67	12.0	13.9	0.79	182.3	-2.8	0.6	5.4	24.4
BNP Paribas	0.90	8.6	10.9	0.45	111.0	-2.9	-7.9	-0.4	24.7
Credit Agricole	0.74	7.9	9.8	0.29	55.6	-2.3	-7.6	3.2	3.7
Deutsche	0.93	9.9	9.6	0.44	63.3	-5.0	0.7	7.6	0.0
Unicredit	1.73	11.0	16.5	1.24	122.3	-4.7	-2.7	1.3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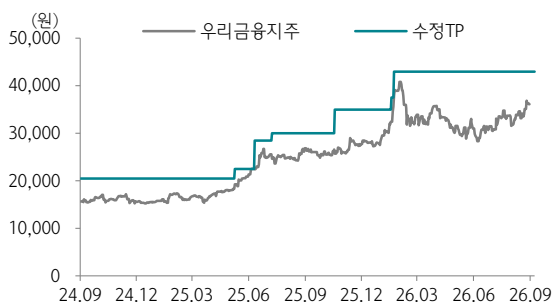
투자조건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KB금융



날짜	투자조건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9.13	BUY	235,000		
26.6.12	BUY	220,000	-23.34%	-15.36%
26.2.11	BUY	200,000	-22.36%	-14.20%
25.11.7	BUY	178,000	-27.10%	-12.64%
25.6.30	BUY	147,000	-22.33%	-14.76%
25.5.29	BUY	135,000	-20.30%	-16.81%
24.10.25	BUY	115,000	-24.56%	-11.30%
24.7.24	BUY	110,000	-21.71%	-11.64%

우리금융



날짜	투자조건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11	BUY	43,000		
26.2.7	BUY	37,500	-6.47%	-5.07%
25.11.7	BUY	35,000	-19.83%	-7.29%
25.7.28	BUY	30,000	-15.26%	-10.50%
25.6.30	BUY	28,500	-13.16%	-6.14%
25.5.29	BUY	22,500	-7.11%	0.22%
24.8.29	BUY	20,500	-20.23%	-10.54%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9월 2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9월 2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조건 비율공시

- 투자건의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18%	1.82%	0.00%	100%

* 기준일: 2026년 9월 18일